

12 칼럼

공감과 상상력

박인철

교수 · 철학



인간은 혼자 살기에는 근본적으로 불완전하고 취약하다. 따라서 인간은 본성적으로 타자와 협력해 유대관계를 맺길 원한다. 타자와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능케 하는 대표적인 능력이 바로 타자의 내면과 감정을 더불어 이해하고 느끼는 공감(empathy)이다.

공감은 크게 정서적 공감과 인지적 공감으로 나뉜다. 공감은 같은 감정을 느낀다는 단어의 의미에서도 잘 나타나지만, 기본적으로 정서적이고 감정적이다. 대표적으로 타자가 고통을 느낄 때, 이를 보는 사람도 마치 자신이 그런 것처럼 같이 고통을 느낀다. 이는 전형적인 정서적 공감으로서 감정이입이라고도 많이 불린다.

한편으로 정서적인 공유만이 아니라 타자의 상황에 거리를 두고 객관적, 종합적으로 판단하기도 한다. 이른바 인지적 공감이다. 말하자면 나를 타자의 위치로 옮겨, 타자의 입장에서 타자를 이해하고 바라보는 것이다. 이 경우, 감정적 공유 요소는 다소 희석되고, '입장을 바꾸어 타자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인지적, 이성적 태도의 측면이 보다 강조된다.

인지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은 공감의 필수 요소다. 특히 공감의 정서적 측면은 타자와의 따뜻한 유대관계를 맺는데 결정적이다. 그러나 인지적 공감과 대비해, 상대적으로 정서적 공감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비판적, 부정적 의견들이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폴 블룸(P. Bloom)은 그의 저서 『공감의 배신(Against Empathy)』에서, 정서적 공감은 특정 그룹, 특정인에게만 초점이 맞추어지고, 여기에 지나치게 몰입함으로써 그 밖의 집단이나 존재에 대해서는 오히려 무감할 수 있고, 이는 타자와 관련된 사태를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힘들게 한다고 비판한다. 특히 자신이 공감하는 사람들에게 피해와 고통을 준 가해자에 대해서는 공감이 작동하기는커녕, 큰 분노와 함께 오히려 증오와 폭력이 무차별적으로 가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따라서 블룸은 도덕성의 측면에서 본다면, 정서적 공감을 최대한 억제하고, 인지적 공감과 같이 이성적 판단을 통해 타자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해할 필



타자와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능케 하는 대표적인 능력이 바로 타자의 내면과 감정을 더불어 이해하고 느끼는 공감(empathy)이다.

(사진=pixabay)

“

공감이 제대로

발휘되려면

한마디로 모든 타자에

편견없는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

”

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유사한 맥락에서 장대익 또한, 『공감의 반경』이라는 그의 저서에서, 정서적 공감이 이른바 동질적이고 친밀한 자기 집단에 과잉 작용할 때, 그렇지 못한 집단에는 공감이 아예 작용하지 않거나, 경우에 따라 쉽사리 폭력성을 띠는 경향이 있다고 본다. 곧 집단 간의 관계에서는 공감 결핍이 아니라 자기 집단에 대한 '선택적 과잉 공감'이 오히려 문제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류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서는 내집단에만 집중되기 쉬운 공감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이성적인 인지적 공감이다.

내집단 중심적인 정서적 공감이 인간 간의 공정하고도 합리적인 관계 맺음을 저해하거나, 모든 타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데 한계를 지닌다는 주장은 분명 일리 있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서적 공감의 한계나 문제점은 이것 자체의 본질적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정서적 공감은 분명 그 자체로는 인간에게 이롭고, 타자와 나

와의 내적 결함을 위해 필요하다. 다만 정서적 공감이 내집단만이 아니라 타자 일반으로 보편적으로 확산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일 뿐이다. 정서적 공감이 그 적용 범위에서 편차를 보이고, 이것이 제대로 확장되는 것을 막는 것은 이를 둘러싸고 있는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편견과 통념이다. 바로 이것이 정서적 공감의 정상적인 확산과 활동을 막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의 관심사는 이러한 편견을 넘어서서 정서적 공감을 어떻게 보편적으로 확산시키고 확대할 수 있는가다.

공감의 확산과 관련해 많은 학자는 상상력의 역할에 기대한다. 공감은 사실 타인의 위치로 자신을 옮겨 타자를 이해하기에 상상의 작용이 기본이자 핵심이다. 다만 문제는, 어떤 태도에서 상상력이 발휘될 때 공감의 확산이 극대화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여기서 제러미 리프킨(J. Rifkin)의 주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리프킨은 그의 저서 『공감의 시대(The Empathic Civilization)』에서 공감을 상상

력에 바탕을 두되, 경이와 경외심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이는 곧 타자에 대한 깊은 존중과 신뢰가 공감의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경이와 경외심의 핵심은 곧 존중이다. 경이와 경외심은 어떤 타자의 존재를 감히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로 우러러보는 것이다. 타자를 대할 때, 어떤 사회적 편견을 갖고 나보다 못한 존재로 깔보거나 무시할 때, 혹은 혐오의 눈으로 바라볼 때, 결코 올바른 공감의 태도가 나올 수 없다. 낯선 외부 집단의 타자를 대할 때, 최소한 나와 같은 존재로 혹은 내가 갖지 못한 어떤 우월한 것을 지니고 있는 존재로 존경의 눈초리로 바라볼 때, 비로소 공감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다. 여기서 공감의 영역은 확장된다. 한마디로 모든 타자에 편견 없는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 물론 이는 단순히 타자를 외적으로만 바라보는 사실적 지각의 형태를 통해서가 아니라 '상상을 통해서' 타자의 내면으로 순수하게 접근할 때만 가능할 것이다.